

유기체적 범재신론과 생태문명

Organic Panentheism and Ecological Civilization

이동우

The Rev. Dongwoo Lee, Ph.D.

Executive Director of Ecological Civilization Korea

Director of Korea Project at Center for Process Studies

제 논문을 한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북아시아적 관점의 유기체적 범재신론은 신과 세상의 관계에 대한 제한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서양 형이상학에서 탈피하여 동북아시아의 주요 종교, 철학적 전통 (불교, 유교, 샤머니즘)에 기반한 기독교 신 이해의 맥락화된 (contextualized) 새로운 신에 대한 이해 방법을 찾는 과정입니다.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 종교의 전통은 그 기본 틀을 제공하는 철학 및 방법론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비교 종교학/철학 연구를 통해 한국의 종교, 철학, 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통에서 발견되는 범재신론의 서구 신학적 개념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신학과 종교철학 영역에서 신에 대한 이해는 서구의 주류 기독교 신학자들이 주로 다루는 서구적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 이해에 대한 신학적인 방법론이 한 문화권의 방법론에 치우쳐져 있다는 사실은 다른 문화권에서 가능할 수 있었던 신이해가 간과되어 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신에 대한 이해는 여러 문화, 전통, 언어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후기식민주의적 시각에서 보자면 이러한 작업은 한국 교회에 주어졌던 서양의 종교철학적 신이해의 방식이 신이해를 위한 절대적인 단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한국 교회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신이해의 방식을 찾아나서는 주체적이고 의미있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서양문화의 주류적 방법론에서 벗어나

다른 문화권의 전통을 통해 기존과는 다른 신 이해의 방식을 찾아 서양신학의 신이해를 재평가하고 한 문화권에 보다 어울리는 새로운 방법들을 고찰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하나의 종교전통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종교 전통에서 신에 대한 이해를 해왔습니다. 한국인의 신 이해는 다분히 하이브리드 (Hybrid)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 세기 후반에 기독교의 전파와 함께 한국에 소개된 서양철학의 형이상학은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신 이해 방식과는 다른 서구 기독교의 가르침에 기초하여 하나님에 대한 규범적 이해를 확립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있어 내부적인 불일치를 가져왔습니다. 이 내적인 불일치는 한국 기독교의 신학 뿐 아니라 신앙의 양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교적이거나 샤머니즘적인 신 이해를 가지고 기독교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생기게 된 신학적인 불일치나, 서구 형이상학적 개념을 가지고 한국인의 신앙에서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예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 이해에서 발생하는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내적불일치는 일방적으로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거나 발생가능한 오류를 무시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앙의 형성 (Formation)에 매우 중요한 신론이 덜 중요하게 여겨지거나 주목받지 못하게 되어 버리고 이는 하나님 개념을 이해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을 과정 철학과 과정 신학이 제공해 줍니다.

과정 철학/신학 (Process Thoughts/Process Theology)은 신의 본성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이해를 구축하기 위해 서양적 신 이해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동양 철학적 방식과 유사하게 신의 개념을 구성하는 통찰력 있는 방법론을 제공합니다. (From Essentialism to Organic philosophy) 이러한 과정철학과 과정신학적 방식의 신 이해를 범재신론 (PanEnTheism)이라고 합니다. 범재신론은 신과 세상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모델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신과 세상의 관계가 분리보다는 포함을 강조하는 신론입니다. 신은 세상을 넘어서는 초월성을 지님과 동시에 세상은 신 안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범재신론에 이러한 과정철학/신학의 개념적인 이해를 통해 한 문화권이 이미 그들의 문화적 틀에 존재하는 범재신론적 신 이해 방식으로 기독교의 하나님의 개념을 재개념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작업입니다. 이러한 작업은 한국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맥락 (cultural contexts)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의 관점에서 본 유기체적 범재신론의 신 개념은 보다 균형 잡힌 전체론적 (holistic), 다문화적(Multicultural, 다양한 문화권에서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긴 서구 철학과 신학의 역사를 고려하면 범재신론은 서구 철학, 신학계에서 비교적 최근에야 소개되고 논의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재신론의 개념은 동양의 종교, 철학적 전통에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신에 대한 범재신론적 이해는 동양의 종교와 철학에서 폭넓게 발견되고 있지만, 서구 학계에서는 그 노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서구의 종교, 철학적 영역에서는 범재신론의 개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서구 학계에서 사용되어온 John W. Cooper의 범재신론의 다섯 가지 주요 범주를 사용하여 범재신론의 개념을 탐색하고, 범재신론적 관점에서 동양의 종교와 철학을 분석합니다. 종교, 철학적 비교 분석을 위해서는 서로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Alfred North Whitehead의 방법론과 Paul Knitter의 방법론을 사용했습니다. Whitehead의 방법론은 비행기 은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제에서 출발해 이륙한 뒤 추상화의 과정을 거치고 난 뒤 다시 구체적인 실제로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Whitehead의 방법론은 서양철학적 전통이 저질러 온 잘못된 인 구체성의 오류 (Fallacy of misplaced concreteness)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와 비슷한 Knitter의 방법론은 넘어가기 (Passing Over) 되돌아오기 (Passing Back)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한 종교적 전통에서 출발하여 그 종교의 테두리를 넘어가서 다른 종교에서 배움의 기회를 갖고 다시 본 종교로 돌아와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본 종교에서 더욱 깊은 신학적 이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서로 다른 종교와 철학적 전통을 비교분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나는 이 논문에서 기독교 신학의 유신론적인 신 이해, 특히 범재신론적 이해에서 출발하여 기독교 신학의 경계를 넘어 한국 문화의 3대 종교 전통 (불교, 유교, 샤머니즘)에서 드러나는 범재신론적 신 이해를 탐구한 다음, 기독교 신학으로 돌아와 새롭게 얻은 이해를 기독교 신학에 적용해 유기체적 범재신론을 정의하고 제시합니다. 이 방법론을 통해 유기체적 범재신론이 한국 기독교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찰하고 유기체적 범재신론이 한국 기독교 내에서 제시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안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중심 장인 6 장과 7 장에서 한반도의 3 대 종교 전통인 불교, 유교, 샤머니즘을 분리하여 이 세 종교가 모두 범신론적 견해를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맥락화한 (contextualized) 한국불교는 인도에서 발원한 초기불교와 달리 중국에 전해졌을 때 중국의 종교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맥락화 과정을 거쳐 세속종교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반도에 이르게 됩니다. 중국화된 불교는 한국문화의 특성 (Koreanness)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또 다른 맥락화를 거치게 됩니다. 이로 인한 주요 변화는 한국불교에서 발견할 수 있는 번영 복음 (prosperity gospel)과 구원의 신성한 권능을 구하는 두 가지 요소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6 장에서 사용한 중국의 현학 학자 종빙의 저작과 그의 불교해석의 방법론을 통해 도출한 도식은 불교의 궁극적 실재 (Ultimate Reality)가 만물에 내재한 모든 신을 포함한 내재적이며 초월적인 실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화된 한국 불교에 대한 해석과 한국불교의 특징은 범재신론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Hetero-Pan-En-Theism)

유교는 한국의 종교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궁극의 실재(Ultimate Reality)인 하늘(天)과 파생 실체인 천하의 만물 사이의 관계는 유교에서 우주의 모든 관련 사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유교의 고전에서 하늘(天)을 궁극적인 실재라고 했습니다. 하늘(天, Tian)은 만물에 스며들어 모든 것을 포괄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창조적인 우주의 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교는 범재신론적이다. 유교의 하늘은 세상과 동등하지 않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 움직임, 역동성의 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세계 그 자체를 초월하는 추상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유교에서의 궁극적 실재라고 할 수 있는 하늘의 개념은 Mono-Pan-En-Theism 이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샤머니즘은 한국 문화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 전통입니다. 샤머니즘은 다른 종교를 만났을 때 쉽게 흡수하고 쉽게 동화됩니다. 한국의 무속신화에는 단군의 건국신화에도 여러 신들이 등장하듯, 다양한 종류의 신과 영이 있습니다. 샤머니즘은 일종의 다신 사상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만물의 자연현상에 주신인 하늘의 신이 스며들기 때문에 서로 유기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샤머니즘적 신관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사상을 발전시킨

동학의 하늘개념에서도 모든 존재에 내재해 있는 초월적 실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샤머니즘은 Hetero-Pan-En-Theism 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유기체적 범재신론은 특정한 문화적 맥락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제한적인 수 밖에 없는 신 이해를 가지고 있는 동양과 서양의 모든 종교인들에게 보다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관점에서 건설적인 신 이해를 도출할 수 있게 돕는 개념적인 연결을 제공합니다. 유기체적 범재신론의 종합적 모델은 서양 형이상학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이원론적인 사고와 실제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서구 고전신학적 입장과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왜곡된 이론에 얽매이지 않는 길을 제시합니다. 유기체적 범재신론은 동북아 문화를 공유하는 기독교인들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신 이해의 방법론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유기체적 범재신론은 기독교 신학이 생태학의 영역으로 그 경계를 확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유기체적 범재신론이 다루고 있는 영역은 인간의 역사와 정치체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유기체적 범재신론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정의는 인간이 만든 시스템을 넘어섭니다. 인간 문명은 자연에 해를 끼쳐왔고 그 피해의 일부는 되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의 선생님이신 John B. Cobb Jr. 박사께서는 파괴적인 인간의 문명을 브레이크가 고장나 끊어진 다리위로 질주하는 열차로 묘사했습니다. 기후 변화, 다양한 형태의 오염, 많은 동식물 종의 멸종은 인간 문명이 자연에 저질러온 정의롭지 않은 불의하고 무책임한 행위의 결과입니다. 인류는 그간의 무지와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 악한 행위를 깨닫고 생각과 행동의 방식을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그 변화가 신학 분야에서는 모든 기독교 신학을 생태 신학 또는 생태학 기반 신학으로 변화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유기체적 범재신론이 제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 신학은 생태신학의 관심사, 언어, 형이상학을 아우르는 신학인데, 이는 인류문명에 있어서 이것이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유기체적 범재신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양식과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기체적 범재신론은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도록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형태의 유신론에 대한 이해는 모든 존재하는 실재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현실태 (Actual

Entity)는 어떤 수준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 문명이 세상을 타자화시켜 일방적이고 착취하는 관계를 맺는다면 절대로 변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타자화 시키는 세상은 인간의 사회와 문명 뿐 아니라 우주의 모든 존재하는 실재를 포함합니다. 천연자원에서부터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확장된 가이아의 개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현실태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능한 현실태의 생성과정에 관여하며, 모든 현실태는 합생 (concrecence)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물질적 양태(Physical nature)로 수용된다. 그것들은 신의 본성의 일부가 되어 다른 현실태들의 합생의 과정에 데이터로서 자신을 제공한다.

이러한 범재신론적 신 이해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특정 수준에서 다른 존재들과 삶을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지구에 존재하는 우리는 다른 현실태들에게 많은 빛을 지고 있습니다. 모든 현실태들의 상호 연결성은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 다른 존재를 착취하거나 해를 입히면 그로인한 부정적인 결과가 어떻게든 삶의 과정 가운데 다시 나타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에 어떻게 살고 어떠한 선택을 해야할지를 우리에게 지시합니다. 기후 변화와 다양한 형태의 오염이 이것에 대한 뚜렷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자기 재생의 한계를 넘어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에 착취당하고 파괴당했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식민지화하고 수탈함으로써 대규모의 파괴를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 인류 뿐 아니라 모든 생명은 고통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더욱 많이 고통 받을 것이 예상됩니다. 진정한 해방은 인간의 문명이 초래한 체계적인 지구 식민지배로부터의 해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전 기독교 신학이 오랫동안 가르쳐온 이분법적인 구분을 벗어나야 하고 인간중심주의에서 탈피하여 유기체적인 범재신론의 이해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간중심적인 신학에서 벗어나 관계성 중심의 유기체적 범재신론을 회복하여 진정한 생태문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